

건강의료



산뜻한 여름나기-레이저 제모

노출의 계절... 패션의 시작은 제모부터

얼마 전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면도하지 않은 '겨털'로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30년전 만해도 겨드랑이 털은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제모도 일반화됐을 뿐만 아니라 공식행사에서는 예외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여름에 접어들면서 평균 기온이 28도 이상 올라가 반팔, 반바지, 민소매 티셔츠 등 살이 노출되는 옷을 입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해당 부위의 털을 제거하기 위한 제모 관리에 더욱 관심이 커지게 된다. 최근에는 제모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남성들 사이에서도 미용 목적으로 얼굴, 팔, 다리 등의 제모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가제모와 레이저제모=흔히 제모 관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가제모' 방법과 '레이저제모' 방법이 그것으로 먼저 자

가, 뿔뿔히, 휴지기의 성장주기를 거치는 모 중에서도 성장기에 있는 모에 영향을 미쳐 제모 효과를 나타낸다. 4~8주에 걸쳐 3~5회 이상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며, 여름을 위해 준비한다면 겨울이나 봄부터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레이저 제모시 유의사항=레이저 제모 시술을 준비한다면 시술 전 2주 동안은 털을 뽑지 말고, 피부부인위적으로 태우는 태닝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레이저 제모는 검은색 색소에만 레이저가 작용하는 만큼 흰 피부가 효과적이다. 또 시술을 받은 이후에는 보습을 철저히 해주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손상을 줄이는 게 좋다.

요즘은 성장이 빨라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제모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겨드랑이나 인종 특히 보이는 부분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레이저



SM美성형외과 이상혁 원장이 이마 부분의 잔털로 인해 얼굴이 답답해보이는 여성에게 레이저 제모를 하고 있다.

모낭제모 파괴... 4~8주에 걸쳐 2~5회 시술

사우나 삼가고 보습·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가제모는 집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자가 제모 시 이용되는 도구로는 면도기·쪽집게·제모크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면도기 제모는 피부 위로 올라온 털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므로 가장 많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털의 모근까지는 제거가 어려워 효과 유지기간이 1일에서 최대 3~4일 정도로 짧은 편이다.

때문에 잦은 제모가 필요하며 쪽집게나 제모 크림, 왁스 등도 반복적인 제모가 필요하므로 약한 피부가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고, 색소 침착이나 그 밖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레이저제모는 털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모낭과 모근, 그 주변의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까지 파괴하는 시술로서 파괴된 모낭에서 새로운 털이 자라지 않게 해 영구적으로 제모가 되는 효과가 있다.

또 훨씬 위생적인 편 아니라 성장

제모는 단 한 번의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패키지로 5회 이상의 시술을 해야 하고, 또 개개 인마다 차이가 있어 부위가 넓거나 털이 굵기에 따라 시술 횟수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레이저 제모의 시술 부위는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 이마, 헤어라인, 여자수염, 구렛나루, 팔, 다리 가슴, 배꼽 등으로 다양한 편이며 시간이 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겨드랑이는 10분 팔·다리 같은 경우는 30분정도 걸리는 편이다.

레이저 조사 후 민감한 상태로 밖을 나가는 것은 좋지 않으며, 반드시 10~20분 정도 차가운 물수건으로 진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레이저 제모 시술 후에 바로 털을 뽑게 되면 시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 탈락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넓은 부위는 시술 뒤 부작용으로 모낭염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면 색소 침착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사우나, 찜질방은 일주일 가량 피하는 게 좋다.

◇레이저 제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먼저 레이저로 제모하는 경우 면도하는 것처럼 한 번에 시술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레이저 제모는 성장기 털만 주로 파괴하는데 성장기 털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 지에 따라서 레이저제모를 할 때마다 파괴되는 털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휴지기의 털이 다시 성장기에 넘어오기를 기다려서 몇차례 시술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레이저 제모 후 겨드랑이 털이 더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하나. 제모시 털 때문에 고민이라면 한번쯤 다한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만, 옷에는 더 많이 많이 묻을 수 있다. 털이 같은 양이 나더라도 이전에는 털이 겨드랑이 털에 묻어있던 증발하는 양이 많았지만 제모 뒤에는 바로 옷에 묻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다한증과 더불어 겨드

랑이 제모 뒤 냄새가 더 나는 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겨드랑이 액취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액취증은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에서 나는 색깔과 냄새가 있는 땀에 의해서 나는 특유의 냄새로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흑인과 백인은 대부분이 액취증이 있지만 동양인에서는 10%미만으로 정도가 적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통의 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레이저제모는 이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이 세균과 반응하는 위치인 모낭을 파괴하므로 냄새를 줄이게 된다. 다만 냄새가 줄어드는 정도가 수술에 비해서는 적으므로 레이저 제모만으로 액취증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좋다. 간단한 시술로 보이는 레이저 제모지만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제모를 받는다면 털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SM美성형외과 이상혁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컴퓨터수술 정형외과 국제학회 학술대회

13일부터 4일간 서울서 열려... 세계 20여개국 석학들 참석

컴퓨터수술 정형외과 국제학회(CAOS International·회장 송은규 전남대병원장·사진) 12차 학술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스위스·이탈리아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논문 82편이 발표되고, 포스터 107편이 전시된다. 특히 컴퓨터 네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술과 로봇을 이용할 수 술, 그리고 환

자 맞춤형 인공골관절 치환술 등 3건의 현장 연결 실시간 수술 구연도 계획되어 있다.

이 학술대회는 지난 200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매년 미주나 유럽에서 개최돼 왔다. 올 학술대회는 지난해부터 학회를 이끌어 온 송은규 회장의 지속적인 유지 노력 끝에 얻은 결실로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컴퓨터수술 정형외과 국제학회는 최근 소개되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한 정형외과 근골격계 분야에서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술을 넘어서 가



송은규 회장은 "서울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임상과 기초연구 유지를 위한 유익한 공동연구 개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대병원, 감마나이프시술 2000건 돌파

지방 최초... 치료 성공률 90% 뇌종양 가장 많아

화순전대병원 뇌종양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의 '감마나이프' 시술 건수가 최근 2000건을 달성했다.

지난 2004년 4월 화순전대병원 개원과 함께 감마나이프 시술을 시작한 후 이 같은 성과는 지방에서는 최초로이다.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이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머리 안의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 뇌수술이다. 200개가 넘는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의 교차점

점을 병소에 정확하게 맞춰 정상 뇌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뇌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시술 후 종양의 소실이나 크기 감소 및 고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술중 통증도 없다.

환자는 수술받은 다음날 퇴원해 직장이나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화순전대병원 뇌종양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는 지난해 11월 '감마나이프 퍼팩션'의 최신 기종을 아시아권에서는 두번째로 도입해 더

욱 많은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감마나이프 퍼팩션'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치료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치료시 정확도를 높인 첨단장비이다.

지금까지 수술받은 200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치료성공률은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량별로는 뇌종양이 80%로 가장 많았으며, 뇌혈관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화순전대병원 신경외과 정신 교수(대한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학회 회장)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국왕이 주최한 행사에 공식초청을 받아 오찬을 함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생체부품소재산업 메카' 육성 협약

치과 관련 미래형 생체부품 연구 개발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및 연구·전문 기관들이 한데 뭉쳤다.

전남대학교 미래형 생체부품소재 RIS사업단(단장 박상원 교수)은 지난 8일 전남대치과병원 회의실에서 광주지역을 '미래형 생체부품소재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13개 산·학·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전남도나노바이오연

구센터, 전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조선대 치과용 정밀강재 및 부품지역혁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주)GTT와 등이 함께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yundai Public Auction,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providing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Daemyung Real Estate, offering servic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property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Sangga Building, highlighting real estate proje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Sangra Real Estat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opportunities and services.